# 장애청소년의 재택교육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Home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Young People

전 찬 영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Our country's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has the final object to accomplish social integrity through the security of basic rights as human beings, access right to society and equal right for chances and complete soci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The contents focusing on this study are that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direction for the seriously disabled should have been discussed and in the position of a special educator who taught the seriously disabled students and experienced their families, I would like to talk about some suggestions.

First of all,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policy direction itself is wrong or insufficient a lot but som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balanced aspect need to be mentioned as the results and summaries as followings. First, in the support for living stability it is preferred that the objects of allowance supply, its amount raise, the additional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medical expenses will be expanded. Second, it is believed that a system should be built to make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neighborhood support educational service all the times and all the services linked and supported. Third, the manpower resources are cooperated, demanded and expanded between ministries and offices to increase professional volunteers and assistant teachers and consistently provide the severely disabled individuals with appropriate and superior services. Fourth, in order to guarantee social participation to the severely disabled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 government is a budget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order of priority is desired. In this case, it is believed that the coexisting social atmosphere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and positive interaction expansion of the disabled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proceed with the welfare policy and if the household and its family don't leave the disabled as they are but they build psychological infrastructure to put the planned welfare policy in practice, it will be a big driving force.

키워드 : 장애청소년, 재택교육, 복지정책

Key Words : handicapped young people, home education, welfare policy

# 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는 인종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존엄과 평등이 비 하적이고 차등적인 경우가 수다하다. 이런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하나의 원칙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 되어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여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생애교육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무겁고, 장애를 두 가지 혹은 그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중도·중복장애(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즉 중도 장애를 가짐과 동시에  중복장애를 가지는 아동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호냐 교육이냐는 선택적 기로에 서 있다.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아동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재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불문하고 이의 개발을 위한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이와 같은 교육학적 시각 변화는 우리 사회구조나 교육의 개념, 교육내용, 교육운영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도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종전에 장애가 심한 학생은 특수학교에 가벼운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해오던 이분법적 특수교육대상으로써 아동의 배치 체계를 타파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그리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으로 배치하는 통합교육의 체계를 강조하면서 모든 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즉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아무리 장애가 심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치체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외. 분리의 환경에 서 삶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던 장애를 지닌 아동도 일반 아동들과 동등한 권리와 꿈을 지닌 존재로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며 생활하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희망과 꿈을 가꾸고, 이웃의 또래들과 어울려 함께 놀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 학교에서 그들의 지. 덕. 체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누구나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바에 차이가 있지

만,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과제이며 이상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는 교육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으로서 누구나 그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성문법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근거로 교육현실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아동 교육법이라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2항에서도'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교육교사를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라고 법률로 강제규정을 제시하여 모든 장애 청소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현실은 아직도 장애 청소년 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은 물론, 장애아동의 교육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31조 제 1항의 규정된 교육권의 의미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특성,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교육,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실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논리는 백지위의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재택장애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권운동으로부터 재택 장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장애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물리적 접근을 강화하며,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아가 인간으로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장애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고 보다 교육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재학 중인 재택 장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장애 아동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살펴보고자 문헌조사에 열정을 쏟으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재택 장애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장애 이해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여 장애 인식 개선에 활용 할 수 있는 장애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누려야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장애 청소년의 교육 중 통합학교에서의 재택교육에 한정지었다. 연구의 범위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써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자를 말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었다. 전문10장 76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이법에서 가리키는 청소년 이라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자를 말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장애청소년은 대다수가 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세분화하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을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실제 장애청소년의 통합학교에서의 재택교육이 어떤 수준에 있으며 문제점 및 애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지금껏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청소년의 재택장애 청소년이 보다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택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실증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 되었는지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방법의 적실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택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교육 경험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 과의 경험적 사실의 교환을 통한 실증적 방법도 사용하면서 아울러 재택교육은 집이 아닌 여러 곳에서 교육 할 수도 있지만 재가교육은 집에서만 교육하는 것이라는 여러 의견들을 모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기의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전달에 있어 혼선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장애청소년 재택교육에 관한 개념을 보다 정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통해 정립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헌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장애청소년 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정상인 청소년보다 복잡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동양사상에 근거한 발달을 살펴보면,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청소년이란 단어 자체가 뚜렷한 정의를 바탕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만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 대를 언급하면서 발달 단계상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종종 볼 수 있다. 그 사례를 든다면 신라시대 화랑도(화랑도)에서 청소년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있고, 동양전통사회의 사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논어」(論語)와 「예기」(禮記)에서는 15세와 20세에 해당하는 연령 대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청소년의 개념을 어렴풋이나마 발견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는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예순에

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일흔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기는 15세로 「학문에 뜻을 두는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생물학적 이론, 정신분석이론,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장애 청소년 교육 이론을 살펴보겠다.

## 1. 생물학적 이론

동양의 정신 의식적 측면의 청소년 론을 신체 발전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 생물학적 이론이다. 생물학적 이론은 주로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변화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는 등)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함을 알게 하는 가시적이고 명확한 지표로 삼고 있다. 자기 신체상(image)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만들며 타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을 대해 줄 것을 원하게 한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들은 이를 정상인보다도 자아를 깨닫는 것이 늦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는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정신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아동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장애 청소년이다. 이로 인해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행동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와 장애 청소년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청소년의 발달에서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한 학자로는 Hall과 Gesell등이 있다.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한 학자들은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달 단계와는 차별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기를 중요하고 독특한 시기라고 인정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기가 급진적이고 변화가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관점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논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 2.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Freud)는 인간발달단계 이론을 심리·성적(psychosexual) 에너지인 리비도가 집중되어지는 신체부위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5단계 가운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는 프

로이드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청소년기의 정신분석적 설명에 주력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기본적으로 내적갈등(internal), 심적 불균형(psychic disequilibrium), 엉뚱한 행동(erratic behavior)이 지배하는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를 살펴보면 우주의 중심을 자신과 동일시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측면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가 심할수록 찾아 볼 수가 없다. 청소년은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쉽게 맺기도 하지만 쉽게 깨지기도 하며, 이기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고한 이상에 탐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타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때로는 자기의 상한 감정에 대하여 무척 분노하기도 하며 가벼운 낙천주의와 극단적인 염세주의 사이를 오고 간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이러한 초자아와 원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 3.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설리반(sullivan)이나 에릭슨(Erikson)과 같은심리. 사회적(psychosocial)발달 이론가들은 유기체에 중요한 생활 사건과 그 사건의 발생시기, 타인과의 관계, 문화적인 특성 등과 같은 심리. 사회적 요인이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설리반은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theory)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상이한 발달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릭슨(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하여 심리사회(psychosocial)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발달과업과 이에 따른 위기가 있으며, 이들 과업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성취 하였을 때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에릭슨(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가 최초의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 때 경험하는 관계들에 의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만약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부적절한 자아를 갖게 되어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도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생물학적 이론이나 정신분석이론처럼 청소년기가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특별히 혼란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의 경우 어떤 발단 단계를 거친다고 해도 매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위기와 과업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에릭슨은 이시기의 주요과업을 정체감 형성으

로 보면서 정체감을 주로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 Ⅲ. 장애청소년 재택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사회 심리적 발달이론을 주장한 에릭슨(Erikson)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일차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자신들이 타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와 자신이 자신들에게 느끼는 점들을 비교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현상과 관련하여 장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Focus)을 맞추어 보겠다.
논의의 초점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2004년 당진군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그 일환으로 당진군의 학교별 장애청소년 현황부터 살펴보겠다.

### 1. 당진군 특수학급 현황

2004년 3월 1일 현재 현재 당진군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재택학급에 재학생을 학년별, 장애별, 장애정도가 어떤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 재학생이다.

<표 3-1> 2004특수학교(학급) 유치원 재학생 현황

| 학 교 명 | 학생수 | 성 별 | | 장 애 별 영 역 | | 통 학 |
|---|---|---|---|---|---|---|
| | | 남 | 여 | 지체장애 | 뇌 병변장애 | |
| 당진용연 유치원 | 4 | 3 | 1 | 남 1 | 남2 여1 | 대형버스로 통학 |

<표 3-2> 2004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재학생 현황

| 학 교 명 | 장애 학생수 | 성 별 | | 학 년 별 | | | | | | 장 애 영 역 별 | | | | | |
|---|---|---|---|---|---|---|---|---|---|---|---|---|---|---|---|
| | | 남 | 여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학습장애 | 정신지체 | 발달장애 정서장애 | 지체 학습 언어장애 | 뇌 병변장애 | 지체 부자유 |
| 당진군내초등학교 특수학급17개학교 재학생수 | 104 | 56 | 48 | 2 | 13 | 17 | 31 | 21 | 20 | 72 | 21 | 3 | 4 | 2 | 2 |

<표 3-3> 2004특수학교(학급) 중학교 재학생 현황

| 학 교 명 | 장애 학생수 | 성 별 | | 학 년 별 | | | 장 애 영 역 별 | | | | | |
|---|---|---|---|---|---|---|---|---|---|---|---|---|
| | | 남 | 여 | 1 학년 | 2 학년 | 3 학년 | 학습 장애 | 정신 지체 | 발달 장애 정서 장애 | 지체 학습 장애 | 뇌 병변 장애 | 지체부 자유 |
| 당진군내중등학교 특수학급 4개학교재학생수 | 25 | 19 | 6 | 10 | 10 | 5 | 11 | 10 | 3 | 0 | 0 | 1 |

<표 3-4> 2004특수학교(학급)유아・초등・중학교 재학생 집계 현황

| 학 교 명 | 장애 학생수 | 성 별 | | 학 년 별 | | | 장 애 영 역 별 | | | | | | |
|---|---|---|---|---|---|---|---|---|---|---|---|---|---|
| | | 남 | 여 | 유치 원 | 초등 학교 | 중 학 교 | 합계 | 학습 장애 | 정신 지체 | 발달 장애 정서 장애 | 지체 학습 언어 장애 | 뇌 병변 장애 | 지체 부자 유 |
| 당진군내22교 유. 초. 중 특수학급재학생수 | 133 | 78 | 55 | 4 | 104 | 25 | 유아 | 0 | 0 | 0 | 0 | 3 | 1 |
| | | | | | | | 초등 | 72 | 21 | 3 | 4 | 2 | 2 |
| | | | | | | | 중등 | 11 | 10 | 3 | 0 | 0 | 1 |
| | | | | | | | 계 | 83 | 31 | 6 | 4 | 5 | 4 |

자료: 당진군교육청 통계자료 2004.3.1현재

## 2. 주요국인 외국의 장애인 재가복지제도와 교육정책

### 1) 일본의 재가교육정책

일본의 신체장애인 복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는데, 재가복지 서비스만 살펴보겠다.

<표 3-5> 일본의 재가교육복지서비스

| | |
|---|---|
| 가정봉사원(home helper)파견사업 | 중증의 신체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일을 돕는 사업 |
| 단기입소사업 | 중증의신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사업 |
| 낮 서비스사업 | 무료 또는 저가로 재가 장애인이 통원하면서 기능훈련, 창작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
| 일상생활용구 지급사업 | 중증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조, 변기, 침대, 점자도서, 복지전화 등의 일상용구를 지급 |
| 자립지원사업 | 개호 사를 제공하여 식사, 입욕, 취사, 세수, 청소 등의 일을 돕는 것 |
| 재가중증장애인 방문 진단사업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진단, 평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 |

### 2) 미국의 장애인 교육정책

장애인 교육정책을 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담당

하는 부서는 교육부이며, 그 산하에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국이 있어 각 주정부에서 재활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고용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의 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된 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Act)이다. 동법에서 주정부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과 같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3) 영국의 재가 장애인서비스

재가 장애인서비스로는 재가 장애인의 가사를 돕고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권을 정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가정 봉사원 서비스, 민간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동 급식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치료사를 고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적응과정이나 애로사항 등을 평가하고 전화나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주며 보조 장치를 마련해 주는 등 일상적인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인 재활 담당관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하여 오락,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교클럽이나 특별 작업장이나 일거리 등을 마련해 주는 주간보호센터(Day centers) 서비스 등이 있다.

### 4) 독일의 교육 및 문화서비스

독일은 사회보험이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로 꼽는다. 장애아동들은 가능한 한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 하며 정상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특수유치원이 조건을 갖추 도록하여 장애 아동에게 개방한다.

장애종별마다특수학교운영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3년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데 교육기간은 연장 가능 하다.또한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최대한 21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아동이 특수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이수 할 지의여부와 어떤 종류의 특구학교에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역교육관청의 교육심리증명과 보건청 및 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 의무적으로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와 학부모회, 사회 및 치료서비스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반학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교육원에서는 교육상담자가장애인문제에 전문지식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일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활조치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 장애인은 연방교육촉진법에 의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 참여방법 등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 5) 프랑스의 교육정책

프랑스의 교육정책은 특수교육수당과 추가수당은 특수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월단위로 지급되는데 지급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 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특수교육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주말이나 휴가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가있는 기간 동안은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CLIS라는 특수교육기관은 일부초등학교에서 정신지체아나 중추마비학생들을 일반학생과 다른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숙달반과 특수과정으로 구분되며 한반의 정원은 12명을 넘지 못한다. 정신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중추자애에 따른 4가지종류의 CLIS가 운영되고 있다

## 3. 재택 장애청소년의 현실과 복지실태

### 1) 법적인 문제

당진군 장애학생의 재가 재택 현실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재택. 순회담당교사의 하루일과를 분석해 보겠다. 순회 담당자는 오전에 재택교육 대상자를 지도하고 오후에 다음날의 지도를 위한 학습내용을 조직하면서 학습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래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무런 자극에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 사지마비로 바닥에 누워 있어 머리조차 가눌 수 없는 아동, 겨우 특수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고 진땀을 흘리는 아동,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전혀 동작을 할 수 없거나 무의지적인 동작이 일어나는 아동, 간질을 언제 할지 몰라 불안한 아동, 여러 약물을 복용하여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어있는 아동 등 대다수 학습과는 무관해 보이는 아동들의 작은 행동 변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 때, 교사들은 가장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상 아동과는 다르지만 가능한 한 유사한 교육을 시키려는 교육은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러한 순회 담당자들의 피 눈물 나는 노력과는 달리 국가의 지원을 보면 명확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가 감당해야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의 교사는 아동의 수행능력과 잠재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조직하여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설정하여,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개별 장애 아동들의 특성에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안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상이 꽉 짜여져 있다. 또한 교사가 아동을 가르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행정법상의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교사의 권한에 속하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은 법에 의해 그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교사는 관계법규를 벗어나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없으며 그 테두리는 헌

법, 초. 중등 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각 시행령(규칙), 시. 도교육청의 조례(지침)등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이 어디에도 재택 순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지침이 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재택. 순회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도. 중복 장애를 지닌 지체부자유 학생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들 기준과 내용은 재택. 순회 교육대상자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 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서는 명확한 교육과정 내용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 재택. 순회교육 대상자의 양질의 내용을 배울 교육권과 교사가 직무를 유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이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 청소년들은 법적 구조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2) 정책조정과 행정체제 문제

재택 장애 아동을 비롯한 장애학생 교육, 장애성인 교육 등에 관한 업무 등 행정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 조정 실 에서는 사회 문화 조정관 실에 복지 노동 심의관, 교육문화 심의관을 두고 국가 사회문화 전반의 행정 부처간의 업무를 지휘. 감독 및 정책조정, 생산적 복지정책의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문화 심의관의 업무로는 교육. 문화. 여성 및 보훈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 감독 및 정책 조정, 청소년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 감독 및 정책조정, 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지원.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행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 복지. 노동의 이원화되어서는 바람직한 장애인 지원행정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 교육. 복지. 노동의 지원은 종합적 협력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3) 학습에 관한 문제

특수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학습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발생된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학습의 어려움은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와 지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발생된 의사소통의 문제. 학습기자재 활용문제, 컴퓨터의 접근문제로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중도. 중복 장애를 지닌 재택장애 아동에게는 더 많은 학습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의

공학 발달은 일반 사람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습 능률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보완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능을 신장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장애학생 학습지원 도구 개발. 보급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며, 민간단체의 설립도 요원 한다. 교육비 책정 및 집행에 있어서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학생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도 대책 수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4) 교육지원 문제**

재택 장애 아동의 학교복귀 및 사회통합은 장애인들의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재택 순화 담당교사와 보조 교사를 극소수로 일부는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재원이 없어 차량이 없어서 교사 및 보조교사가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도. 중복장애 아동의 학교로의 통합.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고도의 교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재택 장애 아동의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발달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현재는 많은 어려운 실정이다.

**5)실태 파악 문제**

국가수준 중도. 중복장애 아동의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중도. 중복 장애아의 교육 요구 및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조직 정비 문제**

장애 아동의 교육. 복지. 노동. 문화 등에 대한 중앙행정부처의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한다.

**7) 학습자료 제공**

중도. 중복 장애아동의 학습 지원 도구를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 국립기관에서 장애인 학습관련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상징적인 운영 사례를 제시하여 민간단체의 설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8)지원센터 설치 문제**

재택 장애아동 교육 지원 기관의 체계화를 위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을 확대 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양한 분야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역내 교장이나 교감. 교사. 부모. 학생 상담지원 및 지역사회 장애인교육. 복지. 노동. 문화 경제생활 관련 행정지원의 조정 기능을 부여한다.

# Ⅳ. 장애청소년의 재택교육 극복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놀이로 또래 놀이 친구를 얻을 수도 또래 집단에 수용 될 수도 없는 것이 한국 장애 아동의 현실이다. 따라서 그들의 특별한 상황, 즉 장애 정도, 장애 종별,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수한 경우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른 각각 다른 특별한 욕구 외에도 일반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아울러 충족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근면성을 기를 수 있으며 열등감과 패배를 벗어 날수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은 일반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와 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에릭슨이 주장한 사회 심리적 발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 1. 장애청소년의 대책 및 정책 개선

### 1) 장애청소년의 복지지원정책 개선

첫째는“장애인통합 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 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장애청소년 복지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 등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서 올바른 장애인관을 확립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장애청소년의 독립지원에 관한 관심이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장애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고, 부모나 당사자 스스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통합되지 못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장애 청소년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장애청소년과 비 장애 청소년의 통합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청소년은 그들이 가진 장애만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일반 청소년이 누리고 있는 기회나 권리마저 박탈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이 일반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일반학교에 장애청소년이 통합되어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속에서 장애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요구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수련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장애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수련기관, 청소년 화관 등에서 장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장애청소년 가족지원 정책이라는 점인데, 이는 장애청소년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그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 청소년의 가족들은 많은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가정은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이러한 장애 청소년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은 장애청소년이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장애 청소년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청소년과 부모, 형제,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우 캠프”도 가족 지원의 한 가지 사례 로 제시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용 시설이나 수용시설을 확대, 개선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용 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대규모 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소규모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장애청소년의 특수교육 정책 개선

첫째는 통합교육 지향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일반적 목적이 인간의 자아실현

이라고 볼 때,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도 결국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학교에서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촉진 될 수 있다.

둘째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장애 아동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수혜 율은 출현 율에 근거해 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아동 출현 율을 전국적으로 정확히 조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발전된 외국에 비해 장애인 출현 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출현율과 실태가 파악 되어야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특수교사 양성제도의 혁신이라는 것이다. 통합교육의 성패는 장애아동의 통합이전에 통합교육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 교육현장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이 가능하고 통합교육의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반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 바탕 위에 특수교육에 대한 방법이나 내용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 양성의 기본방향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망라하여 개방화와 전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 3) 장애청소년의 문화지원 정책 개선

첫째는 장애청소년들의 전용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반 청소년 회관이나 문화의 집과 같이 장애청소년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해 그들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용공간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동아리방, 인터넷 PC방, 음악 감상실, 영화 관람 실,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 반 등과 같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장애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청소년카드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0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제는 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등록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수첩이 발급되며, 장애별, 급별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성인이나 아동과는 다른 독특한 욕구가 있다. 장애 청소년의 이

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장애청소년카드’를 발급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서비스나 필요한 서적의 구입, 영화 등 문화, 여가 활동을 할 때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는 등 장애 청소년 할인 카드를 통해 이들이 각기 다른 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는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각종 공공시설이나 문화예술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청소년에게는 영화관, 극장,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할인하여 많은 장애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 시설을 장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보하여 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4) 장애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장애청소년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포함 되었으나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제2조(기본이념)와 제4장 제26조(청소년수련시설)를 개정하여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또 장애청소년도 청소년 육성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 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기본권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즉 청소년 기본법 제 26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국. 공립수령시설의 설치, 운영)를 개정하여 국. 공립 수련시설 및 사립시설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수련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요구 되어 진다. 또한 장애인복지 법에서는 장애 청소년 부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 복지 법 제 45조(장애 아동 교육 수당 및 보호수당)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 지체 등 중증 장애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는 다르게 부모나 가족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부양 수당에 대한 내용을 확대 개정하여 장애 청소년의 보호자에게도 부양 수당이 지급 되도록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 진흥법은 특수교육과 특수 학급 등의 설치, 운영 등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제도의 시행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다만,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연령 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음으로 장애인의 학령기에 대한 개념을 일반청소년들의 학령기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법에 명시되어야 진정한 특수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2. 재택장애청소년의 복지환경시설의 개선 대책 방안

재택장애 아동의 학교교육기회접근을 보장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들의 장애정도.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병원 .시설. 복지관. 치료실. 지역의 평생 교육기관 등 언제, 어느 곳이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편리한 지원이 다양한 교육체제로 다음과 같이 환경시설로 구축해야 한다.①특수학교의 교육환경과 역할을 재규정하여 중도. 중복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한다.②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교육환경과 역할을 재규정하여 중도. 중복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한다.③장애이해. 특수교육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 제 공한다.④재택 장애 아동 청소년의 학교접근을 위한 통학지원체제를 확립한다.

# Ⅴ. 결 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접근 권 및 기회균등권이 보장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 중점으로 연구한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교육 복지정책 방향을 거론해야 했으며 중증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그들의 가족을 접해보았던 특수교육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를 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균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결론이자 요약을 말해보고 싶다. 첫째 생활 안정 지원에서 수당지급 대상 및 그 지급액의 인상, 교육비나 의료비 추가 지원에 관한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인근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언제든지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서비스가 연계 지원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인력 재원을 부처간 기관 간에 협력 요구 확대하여 전문자원봉사자, 보조교사 등을 증원하여 중증장애인 개인에게 적절하고도 우수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중증장애인의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의 최대관건은 바로 예산문제인데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면 한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중증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확대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가정과 그 가족들이 장애인을 방치하지 않으며 심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계획된 복지정책을 실천해 나가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참 고 문 헌>

김성이 외. (2004).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김태성・송근원. (2001).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문용린 외. (1992). 「청소년지도론」.
박옥희. (2000).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박영균 외. (1992).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방은령 외. (2000). 「아동발달」.
오영재・백경숙・조선화. (2001). 「청소년복지론」. 양지.
이용교. (1992). 「청소년복지」.
이종복 외. (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교육인적자원부. (1999). 「특수교육연찬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2003). 「유・초등학생 장애 이해교육」.
국립특수교육원. (2002). 「재택장애 아동의 교육지원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연구원. (1998).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 조사 연구」.
나사렛대학교 . (2003). 「통합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안내」.
대한특수교육회 편. (1999). 「특수교육용어사전」. 대구대학교 출판부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1995). 「1995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전통문화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청소년문제론」.